백년을 향해! 그날 붓을 꺾던 심정으로

창사 67주년에 부쳐

광주일보가 오늘로 창사 67주년을 맞습니다. 1952년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역 언론의 선구자로서 첫걸음을 내딛은 광주일보는 예순일곱 성상(星霜)이 흐르는 동안 역사의 증인이자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그 본분을 꿋꿋이 수행해 왔습니다. 창사 당시 밝혔던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론(正論)을 편다' '문화창달의 선봉에 선다' '지역개발의 기수가 된다'는 3대 사시(社是)는 그동안 우리를 이끄는 등불이었습니다. 그것은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민과 동고동락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세월은 시련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호남이 넘어야 했던 역사의 파고가 그만큼 험난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일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은 독재 정권의 검열에 저항해 공동 사표를 2만 장의 호외로 뿌렸습니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선언이었습니다.

광주일보는 4·19 혁명과 6월 항쟁, IMF 외환위기, 촛불 혁명 등 격동의 물결 속에서도 호남 대표 언론으로서 위상을 올곧게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지역민과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창사 67년을 맞는 지금, 지역 대표지로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절감합니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이 많기도 하지만,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또 다른 100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최대 당면 과제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 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지만, 현재로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 및 제재 해제를 원하는 북한의 입장에 간극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협상의 고비마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 온 우리 정부는 갈등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북미와 긴밀한 소통으로 신뢰를 쌓아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하계·동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와 함께 4대 매머드 스포츠 행사로 꼽힙니다. 이번 대회는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를 슬로건으로 광주와 여수 등지에서 한 달간 열리며 209개국 1만 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남북 정상이 국제대회 남북 단일 팀 출전에 합의하면서 북한 선수단 참가와 단일 팀 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2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의 공동 입장과 단일 팀 참가에 합의한 만큼, 세계수영대회에도 북한의 참가를 반드시 성사시켜 지구촌 평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광주일보도 대회의 성공 개최는 물론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꽃피우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경제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도 곳곳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생산, 투자, 고용 등 경제 지표는 날로 악화하고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여파로 여기저기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비명이 들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의 세 축을 기조로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타당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 및 완급 조절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도 '고용 참사'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심각한 현안입니다. 이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이 중요합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난 1월 말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에 대한 투자 협약을 체결해 대한민국 일자리의 새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고용을 늘리는 새로운 실험은 광주 노사민정이 4년 7개월 만에 양보와 대타협을 통해 이뤄 낸 결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부터 빛그린산단 62만 8000㎡에 70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10만 대의 소형 SUV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자 모집과 수익 구조의 조기 안정화 등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대·기아차 노조의 자세 변화도 절실합니다. 정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제2, 제3의 지역 상생 일자리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선 첫 사례인 광주의 성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역의 미래를 열어 갈 청년들의 희망이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9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족 차별의 식민지 교육에 반대해 학생들이 벌였던 1929년 11·3 학생독립운동은 전국적인 독립 만세 운동으로 확대돼 제2의 3·1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주일보는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게 예우를 강화하며, 체계적인 선양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5·18 4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상 규명에도 갖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5·18조사위원회의 조기 출범으로 발포 명령자 등 남은 의혹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더 이상 왜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광주 군공항 이전과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등 광주·전남 공동 현안에 대해 시도가 상생과 협력의 길을 걷도록 힘을 보탤 것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호남 지역민들은 역대 선거에서 시대정신과 민심의 방향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광주일보는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이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살찌우고,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심층적인 논평을 통해 독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이제 광주일보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정론직필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문화 창달과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를 통해 광주·전남의 경쟁력을 키우고, 새 천년을 다시 시작하는 전라도가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다는 다짐이야 새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디지털·모바일 시대에 걸맞게 홈페이지와 모바일 콘텐츠 강화에도 힘을 쏟아 독자 여러분들께 보다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사 67주년을 자축하면서 그동안의 사랑과 격려에 다시 한 번 큰 절로 인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손을 씻는 일

권 경 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우리 훌륭한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성실한 연구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해야 하는 걸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의 저자 고려대 김승섭 교수가 최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사회역학 연구를 통해 탁월한 결과물을 내고 있는 저자의 생각이 흥미로웠다. '훌륭한 연구자'가 아니라 왜 '성실한 연구자'일까?

의사이자 저술가인 아툴 가완디 역시 성실함을 강조한다. 그는 다양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로서 필요한 덕목을 담은 책 '어떻게 일할 것인가'(곽미경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18)에서 우선적으로 '성실함'을 강조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매년 미국인 200만 명이 병원 입원 중에 감염되고 그중 9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감염 예방 측면에서 의사들이 지켜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손을 씻는 일'이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제대로 된 의료란 까다로운 진단을 내리는 것이라기보다 모두가 손 씻기를 확실히 실천하는 것에 더 가깝다."

언제부터인가 성실함의 가치는 폄하되거나 부정되어 왔다. 자본주의가 심화되는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성실함은 자본과의 관계에서 볼 때 긍정적일 수 없었다. 아울러 독재 정권과 같은 비정상의 사회에서 역시 개인의 성실함은 기존 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했다. 어쩌면 성실함은 본래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새로운 국면과 현실에 맞게 그 가치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삶은 평면적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떠 있는 수많은 추측들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이 있다는 것마저도 망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증거'와 '증언'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편에서는 비방과 비난, 혐오와 저주의 언어가 난무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기쁨과 행복과 쾌락을 이야기한다. 둘의 공통점은 뿌리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말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왜 구분해야 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는 혼돈 속에서 살아간다. 어떤 구분과 갈래가 없는 상태에서 남는 것은 발악 아니면 침묵뿐이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고등 교육을 통해 우리가 듣고 배운 지식은 구체적인 현장과 사실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수단이 아니라 타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한동안 사회적으로 성실함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데에는 성실함을 지극히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나 자질 정도로 폄하한 탓이 크다. 사실 성실함의 가치는 지극히 사회적인 것에 있다. 앞에서 지적한 우리 사회의 한계와 문제점은 성실함의 공백을 보여준다. 성실함은 '사실'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다.

1595년(을미년) 4월29일 충무공 이순신은 일기에 "새벽 2시부터 비가 내렸다. …노윤발이 미역 99동을 따왔다"고 썼다. 김훈 작가는 100동이 아니라 '99동'이라는 숫자에 주목한다. 이순신의 정신이 바로 이 사실에 입각해 있으며, 그 사실의 힘으로 전쟁을 치른 것이라고 했다. 고문과 감옥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적어도 신에게 아직도 12척이 남아 있다"고 보고한 것도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이순신의 언어와 행동은 사실에 기초한 성실함에서 나왔다.

성실함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하지 않은 삶을 잘 살아 내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성실함은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사실은 곧 데이터이다. 데이터를 갖는다는 것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꾸준함을 통해 드러낸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알아 가고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일을 잘하는 것이다. 그것은 '손을 씻는 일'과 같다.

無等鼓

공감과 망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명문 FC바르셀로나가 지난 16일 구단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추모했다. 바르셀로나는 세월호를 상징하는 종이배·리본 사진과 함께 'Remember 0416 잊지 않겠습니다. 2014.04.16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비록 한국인 선수는 한 명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는 빅클럽의 품격을 보여 준 것이다.

손흥민의 구단 잉글랜드 토트넘 핫스퍼도 지난 2017년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토트넘은 모든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합니다'는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클럽,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 구단이 올 시즌 '별들의 잔치' UEFA 챔피언스리그 4강에 나란히 진출한 것은 그래서 더욱 반갑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목숨을 걸고 46일간 단식했던 '유민 아빠' 김영오 씨는 2017년부터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정착해 살고 있다. 그는 광주에 정착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광주는 저를 가장 뜨겁게 반겨 준 지역이었습니다. 지나는 차량이나 시민들 가방에 노란 리본도 참 많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5·18이라는 집단 고통을 경험한 광주·전남 사람들은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데 익숙하다. 그래서 세월호 유족들을 따뜻하게 안아 주었고 시민 상주가 되어 슬픔을 나누었으며, 언제나 응원하고 함께했다. '5·18'은 '4·16'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 그래서 유족들은 "광주·전남 땅에 들어서면 우선 느껴지는 공기부터가 다르다. 고향에 온 듯 편안하다"고 말한다.

다시 4월. 다섯 번째 봄이 왔지만 아픔은 여전하다. 그날의 진실은 아직 수면 아래 있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은 여전히 망언으로 유족들의 아픈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5·18과 세월호에 대한 이들의 끝없는 망언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집단의식의 표출로 보인다. 타인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이 다시 권력을 가지면 또 어떤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유제관 편집1부장·부국장 jkyou@

종교칼럼

스파게티는 죄가 없어

중 현
광주 증심사 주지

스파게티는 먹는 게 아니었다. 이미 늦었다며 어서 서두르라는 재촉이 마음 한구석에서 끈질기게 올라오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한 것이 화근이었다. 나에게 스파게티는 항상 기대로 시작해서 실망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이번에도 그만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에 현혹되어 먹고 가라는 청을 뿌리치지 못했다. 어이없게도 앉은 자리에서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말았다. 식당에서 파는 스파게티에 실망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 하나는 퍽퍽하다는 것, 다른 하나는 맛이 너무 강하다는 것. 그러나 이건 퍽퍽하지도, 맛이 강하지도 않았다. 파, 마늘 같은 강한 양념과 고기를 넣지 않는 절집 음식에 익숙한 내 입맛에 아주 딱이었다. 봉사하러 왔다는 원래 취지는 까맣게 잊고, 다음 일정에 이미 늦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나는 15분 넘게 오로지 스파게티에만 집중했다.

밖으로 나오니 사방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제서야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얼른 시동을 걸고 갈 곳을 네비게이션에 찍었는데…. 웬걸! 검색이 되질 않았다. 급한 마음에 전화번호로도 검색했는데 이번에 주소가 다르게 나왔다.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찾아줘야 마땅한데 기계 주제에 못하겠다고 지시를 거부하니, 급한 마음에 살짝 짜증이 나려 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잘 알기 때문에 핸드폰에 있는 네비게이션으로 검색했다. 다행히 시키는 대로 잘 찾아줬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큰 길을 놔두고 샛길로만 계속 가라고 했다. 시키는 대로 따라가긴 가는데 전혀 믿음직스럽지 못했다. 그 와중에 내 속을 알리 없는 주최 측 실무자는 계속 전화를 해왔다.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네비게이션에게 짜증을 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쯤은 이미 간파하고 있는 나의 합리적 이성은 당장 화를 퍼부을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스파게티에 정신이 팔려서 다음 일정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던 자신은 까맣게 잊은 채, 주최측 실무자를 아무런 상의 없이 무리하게 약속을 잡는 사람으로 매도하고는 그에게 짜증을 퍼부어 대고 있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는 신호등도 없는 작은 삼거리에 정차했다. 어쩔 수 없이 발이 묶이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이미 약속 시간에 한참을 늦어 버린 상태. 불과 몇 분 사이에 마음 속에서 파란만장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 모든 일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모든 화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엔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분출되지만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애당초 아무 것도 없다. 좌절된 욕망에서 화는 자라난다. 그러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도 그 시작은 아주 미미한 감정의 떨림이다. 화는 왜곡된 욕망이다. 욕망을 그대로 방치하면 할수록 화는 그만큼 에너지를 더 공급받아 스스로를 키운다. 그렇게 해서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감정이 격렬해진 상태를 흔히 "화가 단단히 났다."라고 말한다. 이 정도가 되면 분노는 한 사람의 마음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게 된다.

미미한 감정의 떨림은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알아차리기 힘들다. 화의 근본은 좌절된 욕망이지만 화의 출발은 화를 알아차리지 못함이다. 알아차릴 정도의 빈자리가 마음에 없을 때 화는 시작된다.

불교란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지금 이 순간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는 이것이 바로 나다. 지금 화가 나 있다면 "무엇이 화를 내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곧 불교이며, 걸을 때 "무엇이 걷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불교다. 마음의 빈자리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자신을 돌이켜 나는 무엇인지 질문하는 마음 자세이다. 그리고 수행이란 내 마음 속에 빈 자리를 만들고 시키는 시간이다.

스파게티에 영혼이 탈탈 털린 하루였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그 스파게티는 얼마 전 자비신행회 청년 식당에 올라온 저녁 메뉴였다. 혹시라도 자비신행회 청년 식당에 봉사하러 갈 일이 있다면 마음 단단히 먹길 신신당부한다.

'봄꽃놀이' 떠날 때 졸음운전 주의하세요

매년 이맘때 쯤에는 고속도로는 물론 주요 도로마다 봄꽃놀이를 떠나는 차들로 몸살을 앓는다. 그런데 아무리 봄꽃놀이가 좋다고 해도 봄철 운전자가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전이다.

춘곤증이란 겨울에 비해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이러한 춘곤증은 졸음운전을 유발시킬 위험이 매우 높은데 통계에 의하면 봄철 교통사고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졸음운전이다. 또한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전의 위험도는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2.4배,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 치사율은 7.5배나 높다고 한다. 왜냐하면 졸음운전은 주행 중인 속도 그대로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2~3초만 졸음운전을 해도 100여m 눈을 감고 주행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따라서 봄꽃놀이를 떠날 때는 "졸음운전 예방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다. 전날 과음했거나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일 땐 운전을 자제해야 하며 장거리 운전 시 2시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지속적인 환기를 통해 밀폐된 차내에 신선한 산소를 주기적으로 공급해 줘야 하며, 조금이라도 졸음이 올 경우 잠시라도 쉬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봄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올 봄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봄날, 저 마다 하나씩 소중한 추억들을 가슴 속에 남길 수 있는 행복한 봄날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김학수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